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기업실적 호조 힘입어 3대지수 상승, 그러나...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치에 유가 급락, 증시 강세 흐름

- 미 증시는 DOW +1.79%, S&P500 +1.20%, NASDAQ +1.52% 상승. M7 등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 항공·여행주 강세 뚜렷. 반면, 에너지 섹터는 약세
-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기간중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발표, 국제유가 대폭 하락 WTI $83.8(-11.4%), Brent $90.4(-9.1%)
-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 10Y 4.244%(-6.5bp), 2Y 3.700%(-7.8bp)

1Q26 실적시즌: 시즌 초입이나, 대체로 예상치 웃도는 실적

- Factset 에 의하면, S&P500 기업 중 약 10% 실적 발표, 그 중 88%가 EPS 예상치 상회. 평균 서프라이즈비율 +10.8%. 매출액 기준으로는 85%가 예상치 상회, 평균 서프라이즈비율 +2.0%
- 1Q26 실제 발표치 및 추정치를 종합한 매출성장률 전망 +9.9%(3Q22 이후 최고), 이익성장률 전망 +13.2%(6 개분기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로 대체로 우수. 섹터별 IT·금융·통신서비스 등이 성장 주도
- 2026 연간 이익성장 전망치(+18%)도 낙관적. 다만 12MF PER 20.9 배로, 밸류에이션 눈높이도 함께 높아지는 중

주말중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오만해역 유조선 피격.. 다시 안갯속

- 18 일 이란 측은 하루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며, 이란 정부-군부 간 의견불일치 양상. 이란군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이유로 해협 재봉쇄. 더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인근 해역을 통항하던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피격 사실 발표
- 정황상 미-이란 2 차 종전회담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 일 휴전기한 이전 개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시 이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 강경 경고
- 한편 영·프 주도 40 여개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 진행. 해당 연합군은 상선 보호를 위한 호위함 파견 등 해군작전 계획을 논의·발표. 다만, 분쟁이 진정되는 단계에서 방어적 측면에 국한해 진행될 것을 강조

NVDA 오펜하이머의 최선호주 선정, AAPL 중국 내 아이폰출하량 급증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1.7%	오펜하이머의 '최선호주' 선정, 목표주가 $265 제시에 주가 강세. 블랙웰 울트라 랙 시스템이 경쟁사 대비 약 2개 제품 사이클 앞서며 기술적 우위 지속할 전망이라는 분석. 반면 최근 랠리를 보인 AMD(+0.1%)와 인텔(+0.0%)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 표명
AAPL	애플	+2.6%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 +20%YoY 상승, BNP파리바의 투자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강세. 메모리 원가 상승 국면에서 경쟁사와 달리 가격 동결 전략 구사, 원가 부담을 내부 흡수하며 점유율 확대에 주력. '22년 이후 지속된 중화권 매출 부진을 딛고 반등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 BNP파리바는 투자의견을 '중립'→'아웃퍼폼'으로 상향, 목표주가 $300로 제시
QCOM	퀄컴	+1.3%	JP모건은 투자의견 '비중확대'→'중립', 목표주가 $185→$140로 하향 조정. 메모리 가격 상승 압박과 스마트폰/IoT 시장의 수요 부진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 특히 데이터센터 시장 내 엔비디아, ARM(+2.7%)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점유율 확보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 촉매제 관찰 대상(Negative Catalyst Watch)' 지정
AAL	아메리칸 항공	+4.2%	유나이티드항공(+7.1%)과의 합병 루머 부인 및 유가하락에 따른 항공·여행주 강세에 주가 상승. 유나이티드항공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최대 항공사 중 두 곳을 합치는 '메가 딜' 제안, 아메리칸항공은 경쟁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이라며 공식 거부 의사 표명
AXP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8%	샘 알트먼이 투자한 AI 비용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하이퍼' 인수 발표. 하이퍼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 기업 고객의 지출 분류 및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역량 강화 목적. 하이퍼와 '24년 카드 상품 출시 파트너십에 이은 인수로, 법인 지출 생태계 내 핀테크 경쟁 우위 확보 전략